

사회

학교폭력 이대론 안된다

폭력학생 제재 못하는 교육제도

“폭력 가해 학생이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있어 아들을 학교에 보내기가 두렵습니다.”

지난해 5월 아들(중 1)이 동급생에게 상습 폭행당해온 사실을 학교에 알려 문제 삼았던 학부모 김모씨(50)는 한숨을 내쉬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려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권고 조치가 내려졌지만, 해당 학생은 아직도 자신의 아들과 학교에 다니고 있는 탓이다.

가해자의 부모는 되레 “막상 전학을 가려 해도 다른 학교에서 문제 학생이라고 받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나”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가해자가 학교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 아들이 보복이나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마음 졸이며 산다”면서 “그렇다고 아들을 전학보

내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런 딱한 상황이 빚어지는 이유는 초·중·고 교육법상 초·중·고 학생이 의무교육대상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폭력 가해학생을 퇴학·강제 전학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해당 학생에 대한 최고 수준의 징계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전학권고 결정뿐이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 제한적으로 왕따를 포함해 학교 폭력을 저지른 학생들에겐 전학, 10일 이내 출석 정지, 학급 교체, 특별 교육, 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고등학생은 법적으로 퇴학도 가능하다.

이는 폭력 가해 학생들에 대한 무더기 ‘숨방망이 처벌’로 이어지고 있

가해학생 버티고 피해학생 전학간다

가해학생 퇴학·강제 전학 불가능 타 학교서도 ‘문제 학생’ 안 받아줘 봉사활동 등 숨방망이 처벌도 문제

다. 지난해 광주지역 초·중·고 폭력 가해학생은 956명으로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학생(296명)이 교내봉사 처분을 받았으며, 특별교육(270명), 사회봉사(143명), 서면사과(106명) 순이었다. 퇴학처분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전남지역 가해 학생수는 775명이었으며 교내봉사(324명), 사회봉사

(120명), 서면사과(104명) 순이었다.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은 4명도 모 두 고교생이었다.

반면, 오히려 피해 학생이 보복이 두려워 전학을 가는 일도 있다.

실제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비장애인 학생이 장애인 학생을 폭행해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는 등 문제가 됐으나, 정작 피해 학생이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타 학교

로 전학을 가야만 했다.

광주의 한 중학교 교사는 “학교 폭력을 견디지 못해 해당 학교에서 ‘쉬쉬’하고 있어 외부에 알려지지 않을 뿐 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 간 사례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주 지역의 경우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모두 38명에 대해 전학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극소수만이 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동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전학권고 결정에도 학교 측이 전학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학교로서는 사실상 폭력학생에 대한 징계에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력 가해학생을 타 학교로 전학 보내려 해도 해당 학교에서 문제 학생이라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학교 폭력 대응 조치가 효력을 거두려면 전학권고 조치를 받은 학생을 다른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 양모씨(46)씨는 이와 관련, “폭력 피해학생들이 극심한 고 통속에서 정신병을 앓거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지경에 이르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가해학생들에 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서는 안된다”며 “학교 폭력 가해 학생들을 피해학생과 격리할 수 있는 강도 높은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나원침 (8474) 김종두



U대회 재건축조합장 광주지검, 불구속 기소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일권)는 3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장 정모(55)씨와 정비사업체 D사 고문 이모(64)씨를 특가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6년 3월 7일 A건설사로부터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 건설사의 계열사 대표 B씨로부터 1억3500만원을 받고, 정비사업비 책정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지난해 7월 이씨로부터 자신의 체부 2억 2000만원을 변제하게 한 혐의이다.

또 이씨는 정씨에게 뇌물을 건네는 한편 지난 2007년 4월 7일 B씨로부터 2억9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새벽 귀가 여성 치랑 납치해 성추행

○남자친구와 통화를 하면서 귀가중인 여성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추행한 전직 부사관 출신의 20대들이 남친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1시간 가량 추격전을 벌이다 경찰서행.

○3일 광주서부경찰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힌 박모(24)씨 등 2명은 이날 새벽 4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청평동 모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 형인 김모(여·24)씨를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신체를 더듬어 성추행했다는 것.

○이들은 피해자로부터 도움을 요청받은 남친 친구 이모(32)씨가 승용차를 타고 범행현장으로 나오자 곧바로 달아나 치랑동과 영주동, 화정동 일대를 돌며 경찰과 추격전 끝에 체포.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아이 추위... 버스 언제 오려나 3일 오후 많은 눈이 내리자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광주YMCA 앞 버스 정류장 안으로 눈을 피해 몰려든 시민들이 버스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사료값 없어서”... 소 9마리 굶겨 죽여

순창 사육농, 빚 1억5천만원 감당 못해 물만 먹여 폐사

사료 값을 감당하지 못해 사료를 제대로 먹이지 못한 소 10여 마리가 굶겨 죽는 일이 벌어졌다.

3일 순창군에 따르면 인계면 노동리에서 소 농장을 운영하는 A(56)씨는 이날 오전 자신이 기르던 소 54마리 중 굶겨 죽은 육우 9마리를 농장 인근에 묻었다.

이들 소는 지난해 12월 하순부터 매일 1~2마리씩 죽은 것으로, A씨는 어려운 형편을 알리기 위해 농장에 수일간 방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농장에서는 12월 초순에도 3~4

마리 사료를 먹지 못해 죽었다. 순창군과 전북도는 소 값 폭락과 사료 값 상승을 감당하지 못한 A씨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사료량을 점차 줄이다가 최근에는 물만 먹여 죽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30여년간 소를 키운 A씨는 한때 150마리가 넘는 소를 사육했으나 최근 1억5000만원의 빚을 질 정도로 경영이 급격히 악화했다.

순창군에서 가장 많은 육우를 키우는 A씨는 지난해 눈을 팔고 노후를

위해 준비한 각종 보험 등을 모두 해약해 빚 가운데 1억원 가량을 갚았으나 밀린 사료 대금 5000만원은 고스란히 남아있다.

특히 작년 10월부터는 사료가 턱없이 부족해 죽지 않을 만큼의 소량만 먹였다.

육우를 제대로 키우려면 하루에 4kg를 먹여야 하지만 사료 값이 작년보다 17%가량 오르면서 이들 육우는 수개월간 1kg 정도의 사료만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도내 1만여 마

리의 육우 농장을 대상으로 사육 실태 파악에 나서는데 한편 지원책을 마련 중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우 안타깝다. 현재 A씨의 농장에는 사료가 한 포대도 없어서 남아 있는 소 40여마리를 구해줬다는 뜻을 전달했으나 농장주가 이를 완강히 거부했다”면서 “농장주를 계속 설득해 소를 팔게 하거나 사료를 지원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북취재본부=이동희기자 dhlee@

www.kwangju.co.kr

학교폭력 ‘안전 Dream’ 신고

광주경찰, 홈페이지 운영

학교 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광주지방경찰청이 피해 신고를 위한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한다.

광주지방경찰청은 3일 학교 폭력 피해자나 아동,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 통합포털 ‘안전 Dream’(www.safe182.go.kr)를 개설, 운

영한다고 밝혔다. ‘안전dream’에 접속하면 실종, 가출,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과 관련, 실시간으로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되며 24시간 운영된다. 전화 신고는 국번 없이 117로 하면 되고 위급 상황시에는 문자로도 가능하다. 스마트폰 사용자는 안전드림 어플을 내려받으면 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주경찰 미숙 조치 연쇄 교통사고

삼각대 등 안전조치 소홀

2·3차 사고 초래 2명 사망

경찰관이 출동한 교통사고 처리현장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첫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미숙한 사고현장 관리로 인해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나주경찰에 따르면 이날 새벽 5시 55분께 나주시 남평을 수원리의 한 도로에서 A(42)씨가 운전하던 베르나 승용차가 가로등을 들이받았다. 신

생하자 순찰차에서 나와 교통 통제에 나섰으나 다시 10여분 뒤 이번에는 C(41)씨가 운전하던 싼타페 차량이 도로에 쓰러져 있던 베르나 운전자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고 지나갔다. 싼타페 운전자 C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의 수신호를 보고 진입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진술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왼쪽으로 굽은 곡선구간이라 사고 위험이 큰 곳 이었고 이날 노면에 습기가 많았고 결빙된 상태였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경찰이 2차, 3차 사고가 발생하기 전 삼각대 등 기본적인 안전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데다 시야를 확보할 수 없는 새벽시간 결빙된 도로에서의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119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도로에 쓰러진 A씨를 합류로 옮길 수 없어 A씨를 그대로 놔두고 교통 통제를 시도했으나 수신호를 오인한 싼타페 운전자가 현장을 덮쳐 버렸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중부취재본부=최승렬기자 srchoi@

예약접수 중 **선배 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2월 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종합반 9급 종합반 법원사기보 7급 검찰직 소방직 **한빛고시학원** **농업직 9급 야간반 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명품반**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